

저자 (Authors)	金哲埭
출처 (Source)	한국학논집 4 , 1976.03, 771-774 (4 pages) Keimyung Korean Studies Journal 4 , 1976.03, 771-774 (4 pages)
발행처 (Publisher)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Academia Koreana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410755
APA Style	金哲埭 (1976). 蒙古服屬期間의 史學의 性格과 三國遺事. 한국학논집, 4, 771-774.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12/04 11:19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蒙古服屬期間의 史學의 性格과 三國遺事

金 哲 垞

오랜 동안의 武人政權體制가 타도되고 성립된 王室과 文臣 중심의 體制 下의 元宗 以後의 高麗社會는 外的으로는 蒙古의 강압적인 干涉과 착취를 감내하여야 하며, 內的으로는 격화된 사회적 모순에 허덕이는 苦難과 激動의 시기였다. 이 고난과 시련을 克服키 위해서 고민하고 모색하는 동안에 形成되어진 當代人的 歷史認識은 두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비록 그것이 고려사회가 當面하고 있던 課題들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 당시의 현실을 제각기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것이 제각기 다르게 古代傳統文化를 理解하고 있었다는 面과 後代의 朝鮮朝의 史學에 至大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다시금 檢討를 必要로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相異한 두가지 歷史意識에서 나온 僧 一然의 三國遺事와 文臣들의 史書를 比較하기 위하여 먼저 三國遺事의 性格을 살펴 볼 것 같으면, 三國遺事라는 것은 三國史記의 歷史意識, 즉 현실의 保守的인 입장만 유지하려는 高麗 中代의 文臣貴族들의 文化意識에 대한 광범위한 反省의 움직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三國史記는 東北 Asia系 族屬이 靑銅器文化 鐵器文化를 거치면서 또는 방대한 中國文化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들 자기 體質 위에서 소화 형성해 나갔던 韓國古代社會와 文化가 各 段階마다에서 이룩하였던 그 時代性과 特性을 무시하고, 이를 단조롭고 획일적으로 儒敎史觀에 입각하여 파악하였으며, 金富軾 자신의 입장을 正當化하기 위해서 新羅正統論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三國史記의 歷史認識은 곧 傳統의 沒覺이요 慕華事大主義인 것이다. 傳統의 沒覺은 곧 앞으로 더 發展하려는 理想의 포기인 것이니, 자연 여기에 대한 反撥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李奎報의 東明王篇과 覺訓의 海東高僧傳이 그것이다. 高麗 中代의 現實에 대한 批判과 反省은 다시금 자기 문화의 傳統을 생각해 하니, 古代史體系에서는 檀君으로의 遡及과 東明王說話의 再評價 및 古代文化의 形成과 傳承에 주축을 이루었던 佛敎에 대한 再認識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러한 가운데서 三國遺事가 쓰여졌던 것이다.

三國遺事에선 때로는 Phallicism이나 색슈알 한 것을 淡朴하게 서술기도 하고 때로는 神話와 現實的인 歷史를, 人間과 鬼神의 世界를 混同하는 說話의 世界를 그리며 혹은 宗教의 境地나 閭巷의 一面을 옮겨 놓기도 하는 등 用意없이 이것 저것을 모아 놓아 體

系的인 서술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著述이 하나의 통일된 인식체계를 이룩하고 있으니, 이것은 「不語怪力亂神」이라는 孔子의 입장에서도 東明王說話는 가치있고 신성한 것이라는 李奎報의 意識과 同一히, 三國遺事 序에 해당하는 卷一 紀異 序에서 「怪力亂神在所不語」라 하더라도 帝王의 興함에는 異變이 있을 수 있다 하며 檀君神話와 三國의 始祖說話 등을 收錄하였다. 이러한 一然의 自己 傳統文化를 確信하는 歷史意識으로 因해서 내세워지는 그 神話는 勿論 三國時代나 그 前代에서 주장하였는 바와 같은 좁은 자기 세계만의 인식에서 비롯하였던 그것이 아니라, 길은 중국문화에의 侵潤과 洗練을 받은 후, 그 중국문화와 비교하면서 그 위에서 자기의 傳統을 주장한 것이다. 중국에도 神話가 있고, 그것을 내세우지 않느냐는 一然의 反問은 바로 이러한 것을 말한다. 곧 中國的 普遍性의 世界를 거친 후에도 다시금 確信될 수 있는 獨自性에의 강조인 것이다. 이것은 또한 단순한 古代로의 感傷의인 懷古가 아니라, 當代의 愚夫村婦의 가슴에 생동하고 있던 전통문화의 흐름을 再發見, 再認識코 그에 同感함에서 나오는 確信이 있다. 金富軾과 同時代인 宋人 徐兢의 宣和奉使高麗圖經 卷十七 東神祠 條에 東神聖母之堂이라 하여 河伯女를 모신 神祠의 存在와 그 信仰이 지속되어 왔음을 전해주고 있고, 李奎報는 東明王篇 序에서 村野의 愚婦와 牧童까지 東明王說話를 익히 알고 있음을 말하고 있으니, 이러한 記述들은 곧 當代의 基層社會에 전승되어오던 傳統文化의 흐름을 말해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一然이 그의 史觀으로 무엇이든 뚜렷이 내세운 것은 없으나 몇 가지 性格을 찾아 볼 수 있다. 먼저 三國遺事 중 數處에서 寺院의 財産에 대한 侵奪을 佛力의 加護로 방지하였다는 記述이 보이는 데 이는 당시 寺院經濟의 全般的인 矛盾에 相應하는 態

13世紀—14世紀의 史書·實錄編纂者

人 名	生存年代	著 作 活 動	人 的 事 項 其 他
李 藏 用	1201~1272	監修國史, 禪家宗派圖, 潤色華嚴 錫洞記	元 翰林學士 王鶚과 交遊
金 坵	1211~1278	撰神熙康三朝實錄	王鶚이 金坵所製表詞에 感嘆, 李 藏用 柳墩의 薦
柳 墩	1212~1239	監修國史, 撰神熙康高四朝實錄	柳墩의 薦
許 珙	1223~1281	修國史, 古今錄	
鄭 可 信	? ~1298	千秋金鏡錄	元의 文臣과 高麗史를 論한, 飲藥死
李 承 休	1224~1300	帝王韻記, 內典錄	李藏用, 柳墩의 薦·元의 學士 侯友 賢 李承休詩에 嘆服. 史館修撰官
閔 漬	1248~1326	本國編年綱目 世代編年節要(共著)	元의 文臣과 高麗史를 論한
權 溥	1262~1346	世代編年節要(共著) 孝行錄	四書集註刊行建議
一 然	1206~1289	三國遺事	

度라고 볼 때, 곧 一然이 비록 傳統을 지키에는 有功하였으나 이미 覺訓이 痛烈히 批判한 寺院經濟의 矛盾을 是認치 못한 時代的 限界性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閔泳珪教授의 高見에 의하면, 眞覺國師 慧謙이 志謙이 補遺하여 開刊한 洞山五位顯訣二卷이 誤謬가 많음을 수차 지적한 데 영향을 받아 一然은 重編曹洞五位 三卷을 著述하였다. 이 洞山五位란 良价의 著述로서 佛敎의 입장에서 佛敎의 認識方法과 周易의 易理를 綜合하여 學人들의 功夫의 階次를 밝힌 것인데, 一然이 이미 朱子學이 成立된 후인 이 시기에 이 冊을 重編하였다는 것은 思想史的으로 중요한 展開이기는하나 한편으로는 性理學의 世界를 정면으로 이해치 않고 佛敎의 입장에서 그 思想史的 壽命의 延長만을 도모한다는 限界性이 보인다. 그리고 三國遺事의 洛山寺條, 皇龍寺九層塔條 등등에서 西山大兵의 來攻과 그 피해와 慘狀을 조짐스레 云謂하였는데 이는 元의 侵奪에 대한 강력한 敵愾心을 간접적으로 表出함이다.

以上에서 본 一然의 意識世界와 蒙古服屬期間 中の 文臣들의 史學의 경향과는 상당한 相異를 나타내고 있다. 이기간 중 文臣層에서는 千秋金鏡錄, 古今錄, 帝王韻記, 本國編年綱目, 世代編年節要 등등 비교적 많은 史書가 나왔다. 많은 史書가 나왔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文臣들의 새로운 活動이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들 文臣들이 그 나름의 經綸을 가지고 武人政權打倒와 元에의 降服을 主導하였으나 元의 壓制下에서 전제되었는 당대의 정치적 상황 下에서 그들은 결과적으로 元의 支配政策에 말려들어 철저히 이용당하고 만 꼴이 되었다. 당시의 文臣들이 그들의 자리를 유지하고 出世하기 위하여서는 李奎報와 같이 새로운 世界를 찾으려고 고민하기 보다는 元의 翰林學士들에게 知音이 뛰어나서 敬重함을 받는다던가(李 藏用), 그 文章의 훌륭함을 認定받는다던가(金 坵), 우수한 詩人으로서 인정되는 것(李 承休) 등이 前提條件이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條件이 元의 폭압을 어느 정도 緩和할 수 있었던 것은 金坵가 表辭를 잘 지어 바쳐서 元의 徵詰을 모면하였다는 例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文臣들은 蒙古公主의 虜포에 시달리고 達魯花赤나 通譯官의 눈치를 살피기에 餘暇가 없었으니 그들의 文章과 儒學은 高麗國家의 自律的 運營을 위한 經綸이 아니라 元의 徵詰이나 完化하여 결과적으로는 元의 高麗支配를 長期間 維持시키는 기능을 하였던 것으로 되었다. 즉 元의 慈惠에 의존하여 자신의 지위와 服屬國으로서의 高麗의 存在를 최저한의 선에서 유지하려는 것이었으니, 이들의 史學 역시 철저한 事大主義의 그것인 것이다.

<表>에서 보이는 文臣들의 史書 중 오늘날 남아 傳하는 帝王韻記를 볼 것 같으면 비록 檀君을 云謂하였으나 檀君 朱蒙으로 이어지는 三國遺事의 體系와는 달리 新羅正統論으로

기울었으며, 民族叙事詩를 읊으면서도 가장 좋은 테마인 廣開土王의 업적이나, 乙支文德 姜邯贊의 勝利같은 것은 言及을 회피하였다. 對外發展과 투쟁의 영웅을 贊頌한다는 것은 곧 元에 대한 不穩한 意識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嫌疑를 쫓기 위한 의도에서이다. 그리고 高麗建國을 노래하면서도 諸豪族勢力과 後三國을 통일하고 高句麗의 계승을 포방하며 北進政策을 내세웠고, 이 北進과 高句麗舊疆(東明舊壤)回復의 理念은 忠宣王이 李齊賢에게 太祖의 西都巡行의 뜻을 云謂하는 데에도 보이듯(高麗史太祖世家史贊) 고려 말기까지 강인하게 전해져오음을 볼 수 있다. 取民有度를 강조하여 새로운 정치질서의 수립을 主唱하던 統一國家의 建國精神을 말하지 못하고 기껏 松嶽의 한 지방 호족으로서의 王建의 家系를 唐 肅宗과 人眞仙을 연결시켜 口述코 있을 뿐이다.

이러한 事大的이고 좁은 幅의 역사인식은 李齊賢에 이어졌다. 鮮初에서 마땅히 制度 確立을 통한 社會改革을 주장하던 新進士大夫의 改革意志와 李奎報와 一然에서 보이는 폭넓고 自主的인 傳統文化意識이 결합되어서 새로운 歷史認識體系가 수립되어져야 할 것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말았다. 그것은 新進士大夫들이 寺院勢力和 寺院과 結托한 舊勢力을 解體하기 위하여서는 益齋 李齊賢의 史觀을 繼承하는편이 便利하였던 것에 있다. 그리하여 좁은 儒敎史觀에 입각한 歷史叙述로서의 高麗史나 東國通鑑이 나오게 되어졌던 것이다.